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正統性理論

後進國 民族主義와 社會構造分析

研究執筆責任 李 源 明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社會學科卒 (1963)
 서울대학교 國立大學校卒
 서울대학교 同, 大學院卒 (哲學博士1972)
 서울대학교 社會大 社會學科 助教授 (1973)

刊行責任 李 源 明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 | |
|----------------------------|----|
| 序 論 | 3 |
| 第 1 章 殖民地的 經濟構造 | 6 |
| 第 1 節 殖民地的 後進性斗 概念 | 6 |
| 第 2 節 殖民地的 經濟構造 | 8 |
| 第 3 節 後進国 工業化斗 問題 | 11 |
| 第 4 節 經濟的 民族主義 | 13 |
| 第 2 章 歪曲된 社会構造 | 20 |
| 第 1 節 殖民地的 社会構造斗 三類型 | 20 |
| 第 2 節 二重社会構造斗 分析 | 23 |
| 第 3 節 社会的, 文化的 民族主義 | 27 |
| 第 3 章 殖民地 民族主義 | 36 |
| 第 1 節 後進国斗 近代化理念 序說 | 36 |
| 第 2 節 殖民地民族主義斗 歷史的, 社会的 本質 | 38 |
| 第 3 節 殖民地民族主義斗 展開形態 | 49 |
| 第 4 節 指導理念斗 精神革命 | 59 |

序 論

現代의 이른바 後進國民族은 그 大部分이 西歐 先進國의 제국주의 政策下에서 강압과 수탈에 신음해 온 植民地民族이다.

이들 植民地民族은 解放과 獨立을 爲하여, 분부림 컸으니; 그것이 바로 植民地民族主義 運動인 것이다.

이같은 植民地各國의 民族主義運動은 第2次 大戰後에 이르러 비로소 그 成果를 거두기 始作하여 오늘날 植民地民族은 거의 모두 獨立을 獲得하기에 이르렀다.

植民地民族은 獨立이야말로 제국주의적 수호자의 撤去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같은 獨立은 바로 그들의 해소와 幸福을 約束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곧 經濟的 繁榮을 意味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福祉社會의 到來를 意味한 것은 아니었다.

이같은 환멸과 더불어 後進國民族은 그들이 遂行해야 할 缺欠 課題 즉 近代化 革命과 後進性 克服이란 課題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植民地民族主義도 또한 獨立을 위한 民族主義는 産業 革命의 指導理念으로서의 이른바 獨立을 위한 鬪爭의 民族主義로부터 그같은 課題解決을 爲한 指導理念으로 轉換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전의 단순한 독립을 위한 民族主義는 산업혁명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이른바 經濟的 民族主義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같은 산업혁명의 前提條件인 社會主體性의 확립과 정신혁명의 前提條件인 社會主體性의 확립과 정신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社會的 文化的 民族主義로 發展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전개되고 있는 植民地民族主義의 이념추구야말로 오늘날後進國社會科學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課題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科學은 現實問題를 度外視한 理論의 유희가 아니며, 「듀이」 John Dewey 의 주장처럼 그것은 마땅히 現實에서 課題(Problem)를 해결(Solution)하기 위한 추구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자각에서 後進國의 社會科學이 그 課題인 植民地民族主義의 理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선 그 接近法이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現代 後進國의 社會는 先進社會처럼 同質的으로 平均化되고 수명화된 社會가 아니고 이질적인 처立과 모순을 내포한 社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後進社會의 현상은 다만 社會心理의 표면층에 있어서 계량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비헤이비어리즘”

(Behaviorism)의 接近法만으로서는 그 真相이 제만될 수 없다.

그 같은 이질적인 後進社會現象을 계층하자면 정치사회적 接近法 내지 정치 哲學的 接近法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으니, 社會現象의 차이에 따라 接近法도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先進社會의 科學은 개성社會의 보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결과, 그 科學이 觀照의인 傾向으로 흐르고 이른바 존재하는 것 (Sein)의 分析에만 終始하기 마련이지만, 後進社會의 科學은 혁신과 建設을 問題삼는 實踐의인 傾向에서 존재하는 것의 分析뿐만 아니라 同時에 존재해야 할 것 (Sollen)을 추구하는 科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實踐의인 傾向의 後進社會의 科學은 社會現象을 實踐狀況에 있어서의 형성연관 관계로서 계층해야 하는 것이니 Sein과 Sollen은 相互 실천적인 連관에서 계층되어야 한다.

즉 Sein은 Sollen과의 連관에서 分析되어야 하며, 반대로 Sollen은 Sein과의 連관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같은 실천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계 측면이 종합적으로 統一되어서 이룩된 狀況인 것이므로 그같은 狀況에 있어서의 社會現象의 형성연관 관계의 추구는 社會의 계 측면을 統一의으로 계층하려는 이른바 統一的 社會科學의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現代 後進社會의 科學은 사회표면현상의 계량화를 일삼는 Behaviorism 만으로서는 될수 없으니, 統一社會科學의 實踐的인 입장에서 社會現象의 狀況的인 형성연관 관계를 정치사회학 내지 정치철학적인 接近法으로써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本 論文은 이같은 接近法에서 現代後進社會의 狀況分析과 더불어 그 실천적 이념의 추구를 試圖한 것이다.

第 1 章 植民地的 經濟構造

第 1 節 植民地的 後進性的 概念

後進國의 經濟開發을 論하고 있는 학자중에는 現代 後進國의 그 특유한 植民地的 後進性 (Colonial backwardness) 의 問題를 수라하고 後進國을 단순히 經濟學的 立場에서 接近함으로써 低開發國 (Underdeveloped Countries), 또는 未開發國 (Undeveloped Countries) 으로서만 規定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未開發國, 또는 低開發國의 特徵으로써

(a) 人口와 資源에 대한 資本절비의 低劣 (자본부족)

(b) 工業의 未發達 (전공업화)

(c) 先進國에 비한 一人당 國民所得의 低劣 (低所得) 등을 들고, 그중에서도 특히 國民所得을 先進國과 後進國의 구별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국제연합의 경제전문가들도 그 신고서에서 '1인당 실질소득이 先進諸國의 實質所得에 비하여 低劣한 나라들을 低開發國이라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이와 同一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순경제학적 立場에서 接近함으로써 後進性을 단순히 資源의 低開發 (Underdevelopment of resources) 로서만 認識하여서는, 現代 後進國의 그 獨特한 後進性의 본질은 모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랑군이 大學의 「밀트」 H. Myint 교수는 이같은 見地에서

경제학적 接近法의 지적하고 이른바 先進國의 問題라는 것은 다만 "자원의 저개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경제적 후진성 (economic backwardness of people)의 問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같이 經濟學的인 見地를 넘어서 社會經濟學的인 立場을 취하는 「민트」는 자원의 저개발과 주민의 후진성과의 사이에는 필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또한 相互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後進狀況을 惡化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전기한 經濟學的 接近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後進國의 問題들 다만 저개발의 問題로서만 규정함으로써 後進國問題의 核心을 은폐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리하여 그는 後進地域의 經濟開發의 問題를 低開發國 (Under-developed Countries)의 問題로서 接近하는 經濟學的 立場을 止揚하고 後進國 (backward Countries)의 問題로서 社會經濟學的 立場에서 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後進國의 問題를 단순한 저개발성의 規定에서 後進國의 問題로 認識의 進展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後進國의 問題는 經濟社會學的인 接近方法으로서도 밝혀질 수 없는 핵심 問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現代의 後進諸國은 서구 先進國의 제국주의정책에 의하여 16세기 중엽이래로 漸次 植民地化 되었던 나라들로서 植民地 宗主國의

政治的인 權力支配下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형태는 人爲的으로 억압 되었으며 또 부곡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現代 後進國의 後進性的 問題는 다만 社會經濟學的인 立場에서만 그 포상이 거구될수 있는 問題도 아닌 것이다.

그 後進性的 問題는 權力的인 강압關係를 그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問題인 만큼 정치경제학 또는 정치사회학 的 觀點에서 考察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考察될 경우, 그 後進性은 단순한 의미의 後進性이 아니라 植民地的으로 부곡된 後進性 즉, 植民地的 後進性 (colonial backwardness) 의 問題로서 規定되는 것이다.

이같은 接近法에서 다음에 植民地的인 經濟社會構造를 分析하려는 것인데, 본서에서는 現代 후진제국중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제국의 問題는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제국의 問題中에서도 주로 「아시아」後進國의 問題를 다루려는 것이다.

第 2 節 植民地的 經濟構造

서구 先進國의 近代化는 그 내실에 있어서 産業혁명을 의미한것이고 産業혁명은 또한 工業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 先進國이 이같은 近代化, 즉 公業화를 이룩함으로써 자본과 技術이 발전되었을때 자본주의의 生理로서 絶對히 요구된 것은 公業原料의 供給과 公業제품의 消費를 위한 市場의 開拓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狀況에서 그를 先進國은 強大한 軍사력을 背景으로 한 國가 권력으로서 植民地의 經濟構造를 宗主國 자본주의의 생리에 알맞도록 強압적으로 攪雜하여 종속시켰던 것이다.

즉 식민지 國가의 經濟構造는 一分에 있어서 植民地 宗主國에 대하여 食糧과 公業원료 및 安가의 勞動力을 供給하고 또한 다른 立場에 있어서 宗主國의 公業으로부터 산출되는 公業제품을 소화하는 市場이 되것끔 攪雜된 것이다.

그리하여 植民地國家의 經濟構造는 食糧과 原料를 生産하는 제 1 차 산업부문과 植民地 宗主國의 商品市場으로서의 제 3 차 산업부문이 압도적 순위인데 비하여 제 2 차 산업의 公業부문은 尠무하거나 缺如하는 기형적인 構造가 되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國 名 | 제 1 차 산업 | 제 2 차 산업 | 제 3 차 산업 | 年 度 |
|-----------|----------|----------|----------|------|
| 인 도 | 51 % | 16 % | 33 % | 1950 |
| 버 여 마 | 46 % | 12 % | 42 % | 1951 |
| 파 키 스탄 | 60 % | 7 % | 33 % | 1950 |
| 인 도 네 시 아 | 54 % | 12 % | 34 % | 1951 |
| 캄 보 디 아 | 57 % | 7 % | 36 % | 1951 |
| 태 국 | 57 % | 15 % | 28 % | 1950 |
| 니 제 리 아 | 68 % | 3 % | 29 % | 1954 |
| 자 유 중 국 | 34 % | 19 % | 47 % | 1951 |
| 한 국 | 47 % | 9 % | 44 % | 1953 |

(United Nation : Statistical Yearbook, 1960).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植民地인 後進國家들은 宗主國의 상품시장으로서 제 1차 산업은 기형적으로 팽창하였는데 反하여 제 2차 산업의 공업전문은 종주국의 제국주의정책에 依하여 그 發展이 抑壓됨으로써, 16%에서 3%線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내 工業部門은 큰 생산성과 건강율이 산업부문중에서도 가장 높은 部門이므로 이 部門이 發展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과 건강율이 增進될 도리는 없는 것이다.

現在 後進諸國의 共通의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자원과 실업의 악순환" (Vicious circle of poverty and disemployment) 은 바로 이같은 공업부문의 발전이 억압된 식민지적 經濟構造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現象이라는 것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植民地的인 後進國家가 자원과 실업의 악순환과정에서 허덕이는 반면에 先進國은 높은 所得과 완전건강의 경제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植民地的인 後進國의 工業發展을 抑制하여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상품유출을 強出하고 나아가서는 자원과 실업을 植民地 後進國으로 轉嫁함으로써 이룩된 번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植民地的인 後進國의 經濟는 植民地宗主國에 依속하여 그 종주국의 자본주의 經濟를 살찌게 하고 또한 그 모순을 轉嫁하여 자담하였을 뿐만아니라 또한 植民地企業家에 依하여 강행되었던 이른바 단일제도 (monoculture system) 의 偏倚的인 生産體制로 말미암아 그 단일배제물의 價格이 先進強大國의 포착과 세계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飢饉되는 불안정한 經濟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단일재배의 例로서 「베트남」의 米穀, 「말레지아」의 고무와 주석, 「버마」의 주석과 「티이크」材, 「세일론」의 차와 「코코넛트」, 南「아프리카」의 煙草, 「니제리아」의 「코코아」, 「케니아」 「우간다」, 「수단」의 棉花, 「코코아」등을 들수 있다.

그런데 이 단일배제에 진강되는 人員이 보통, 총건강수의 70% 내지 90%가 되며 그 所得이 國民總所得의 60%내지 70%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배제의 생산물이 自然기후의 恣意에 지배될 뿐만 아니라 強大國의 가격 또는 세계시장의 경기 변동에 의하여 희롱되고 있으니, 그들 後進國의 經濟狀態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감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第3節 後進國 工業化의 問題

위에서 植民地的 經濟構造의 變遷을 論하였는데, 그렇다면 그처럼 부수된 經濟構造를 어떻게 바로 잡아서 近代化된 均衡있는 自립적인 構造로 變換할수 있을 것인가, 現代 後進國의 經濟構造가 植民地的으로 부곡된것은 先進宗主國의 強압과 經濟的인 압력에 의하여 단일 지배를 포함하는 제1차산업과 제3차 산업이 기형적으로 팽창한데 비하여 제2차산업은 전혀 發展될 수가 없었다는데 由來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부곡된 經濟構造를 바로 잡기 위하여서는 先進宗主國으로부터 政治的으로 獨立해야 할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圧力에 抵抗함으로써 제 2 차산업을 비호적으로 發展시켜서 經濟의 構造的인 轉換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제 2 차산업의 비호적인 發展은 後進國의 工業혁명을 意味하는 것인데 그같은 工業혁명은 또한 後進社會의 近代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사실 工業혁명에는 바로 社會의 近代化 革命이라 할 수 있으니 독일 歷史學派의 「리스트」 Friedrich List 그 經濟發展 段階說에서 농업집단에서 농업공업단계에로의 發展過程을 社會의 近代化 過程으로 看做하였던 것이다.

또한 現代에 있어서도 「콜린 .클라아크」 Colin Clark, "A.G. B.Fisher, "썩거" H. W. Singer 등은 소득수준의 경향을 工業 人口의 産業別분포와 그에 따른 國民所得의 경향에서 工業, 제 2 차, 제 3 차 産業 부문에 比較하여 제 1 차 産業 부문의 工業 人口와 國民 所得의 相對的 비율저하의 경향을 가지고 經濟的 進도의 指標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저개발국이란 전공업화국 또는 비공업화국이라 看做하고, 經濟開發이란 工業化를 意味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後進國 經濟의 近代化인 發展은 工業혁명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같은 工業혁명에 對하여 부정적인 見解를 主張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니, 그 代表的인 例로서 「바이너」 Jacob Viner 를 들수 있다.

「바이너」 Jacob Viner 는 後進國에 있어서 經濟發展을 爲하여 人爲的으로 公業化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主張하면서 위속한 經濟發展을 爲하여 가장 將來性이 있는 分野는 오히려 농업분야이 니 농업의 發展을 爲하여 힘쓰는 것이 더욱 더 効果的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Jacob Viner"의 見解는 後進社會의 그 植民地的 後進性的의 왜곡된 性格을 政治經濟的으로 把握하지 못하고 다만 經濟學的인 接近方法에서 그 皮相的인 低開發性에만 留意함으로써 이룩된 謬見이 아닐수 없다.

現代 後進國은 前述한것 처럼 宗主國의 植民主義에 依하여 생산성과 健康율이 가장 높은 公業부문의 發展이 人爲的으로 저해되 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원과 실업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植民地的 後進國이 그 실업을 一掃하고 近代社會로 轉換하자면 「바이너」의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人爲的으로 그 發展이 저해된 公業부문을 새삼스럽게 人爲的으로 發展시키는 公業 化혁명이야 말로 필연 불가피한 작업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바이너」 Jacob Viner :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Jacob Viner Trade.

第 4 節 經濟的 民族主義

제 2 차 大戰後 後進諸國은 모두가 形式的으로는 政治的 독립을

수득하여 主權國家가 되었으나 內容的으로는 아직껏 植民地的 經濟構造를 淸산할 經濟的인 독립을 達成하지는 못하고 있다.

經濟的인 독립은 自主經濟의 建設을 그 條件으로 하는 것이요, 自立經濟의 建設은 公業부분의 發展에 依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公業부분의 발전은 産業의 近代化, 즉 産業혁명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또한 植民地的 經濟構造의 淸산을 同時에 意味하고 있다.

이처럼 後進國에 있어서 産業혁명을 意味하는 公業화의 問題는 植民地 經濟構造의 淸산과 經濟的인 독립전달을 爲한 관련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容易하게 達成될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

後進國 公業화에서 우선 부딪치는 난관은 그 絶對적으로 부족한 자본의 問題라 할 수 있다.

「넛시」(Ragner Nurkes :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가 지적한 바와같이 저소한 생산력과 소득수준, 그에 따른 저위의 적응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後進國에 있어서는 國內자본의 形成은 困難한 것이므로 부득이 外國자본의 援助 또는 借款에 依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政治的, 經濟的 獨立을 犧牲하지 않을 수 없다는 難關에 도달한다.

또한 後進國은 그 단일지배제도의 偏倚된 産業構造를 改造하여 均衡이 잡힌 自立經濟를 確立해야 하는데 公業화를 爲하여 必要한 자본재 구입용 자본을 獲得하려면 그 縮小시켜야 할 단일지배제도를 오히려 擴大 強化해야 한다는 「딜레마」(dilemma)에 부딪친

다. 이같이 後進國은 우선 그 工業化를 爲한 자본 습득에 있어서 許多한 難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難關이 되고 있는 자본획득의 問題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問題라 하더라도 現象的인 次元의 問題에 關해서 본질적인 次元의 기본적인 問題는 아니다.

後進國 工業化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經濟的인 主体性 確立의 問題이며 또 나아가서는 工業化, 즉, 산업혁명을 爲한 새로운 經濟原理와 經濟構造에 關한 問題이다.

이와같은 基本的인 問題가 確立된다면 政治的 經濟的 獨立을 犧牲하지 않고서도 의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이요, 그 의의 각종 「딜레마」도 또한 時間問題로서 그 해결이 可能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後進國의 經濟的인 主體性 確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問題가 되는 것은 그 植民地時代로부터 독립후에 이르기까지 중속하여 作用하고 있는 「민트」의 이른바 불명등화 요인 (disequalizing factors) 이다. : (H. Myint: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VT No).

불명등화 요인은 先進國과 後進國을 불명등하게 만들어 가는 抑壓, 帝國主義的 支配에 依한 政治的인 抑壓 그리고 자본 技術, 經驗等의 優越性에 입각한 經濟的인 抑壓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요인들은 後進國에 對하여 相互 相乘的으로 또 積極적으로 불리하게 作用하여, 後進國으로 하여금 先進國과의 경쟁에서 불

평등한 狀態로 몰아 넣는다.

이러한 불평등화 요인은 後進國이 그 植民地時代에 있어서 先進國에 依하여 完全히 制圧당하여 奴隸化되고 수복된 원인이 된 것이지만 政治的인 獨立이 達成된 오늘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요인은 중속적으로 作用하여 後進國의 經濟的 獨立과 發展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後進國이 자유자본주의를 採択하여 “經濟諸力의 自由로운 활동”을 放任한다면 불평등화 요인이 적극적으로 作用함으로써 우세한 外國자본에 依하여 국내자본기업가의 尪증법을 招來하고 外國자본의 間接的인 지배하에 국민은 다만 임금부양의 新세가 되고 마는 것이니, 이른바 經濟, 또는 새로운 形態의 植民地化를 거부하고 經濟的 獨立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서는 植民地時代 이래로 그칠 새 없이 作用하고 있는 불평등화 요인에 對抗할 힘(countervailing power) 으로서 經濟的인 主体性을 確立하고 民族資本의 育成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민트」는 이같은 불평등화 요인에 對한 對抗力인 經濟的인 주체이념으로서 經濟的 民族主義(economic nationalism)의 確立을 力說하고 그 合理的인 組織化를 問題삼고 있는 것이다.

또 「릴달」 Gunnar Myrdal도 後進國에 作用하는 國內的 國際的 불평등화 요인을 중시하고 “植民地的 經濟體制”로 부터 “國民的 經濟體制”에 로의 體制轉換을 강조하고 있다.

「릴달」 Gunnar Myrdal :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에 依하면 植民地主義가 중속國에 對하여 끼친 가

장 큰 경향은 均衡잡인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 필항불가한 國民的 經濟的 統合을 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하고, 獨立한 後進國은 國家가 주동이 되어 經濟的, 社會的인 媒介인에 對한 組織的인 간소를 통하여 그 저해되었던 國民的 經濟的 統合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된 국가계획의 열행에 의하여 비로소 後進國에 作用하고 있는 불평등화 요인은 저지될 수 있으며 그 植民地의 後進性도 打破될 수 있는 問題라 하면서 그 국가계획의 원리로서 合理的인 民族主義를 提唱한다.

이처럼 「민트」나 “Gunner Myrdal”은 불평등화 요인에 對抗하는 주체적인 理念으로서 經濟的 民族主義의 確立을 제시하고 있는데,

植民地의 後進國이 民族主義에 입각하여 그 政治的인 獨立을 達成한 오늘날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經濟的 獨立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民族主義의 經濟理念을 採択해야 한다는 것은 必然的인 사리라 할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또 後進國에 있어서 역할은 經濟의 구체이념으로서의 民族主義와 관련하여 그 經濟主体의 역할은 國家가 담당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後進國의 個人企業家は 國家의 基幹産業을 經營할 자본과 經驗을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다.

불평등화 요인의 作用에 依하여 그들은 外國자본의 變種자본으로

經濟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經濟의 주체성을 그와같은 個人 企業家에게서 求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國家가 經濟의 주체로서 표면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現在 後進諸國이 그 經濟的 民族主義의 組織化로서 施行하고 있는 기한산업 및 특점기업등 重要산업의 國有化政策은 바로 이같은 理由에서 國家가 주동이 된 民族經濟의 主體性確立을 위한 努力의 一端이라 할 수 있다.

사실 後進國에 있어서 重要산업은 거의 모두가 植民地 企業家 또는 자본가의 既有企業으로서, 그것이 民族經濟를 基本的으로 제약하고 있으니, 民族經濟는 결국 外國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蝕용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같은 企業의 國有化는 植民地性의 脫却을 위하여서도 불가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國有化정책 외에 經濟的 民族主義의 組織化政策으로서는 國家에 依한 보호무역정책, 協동조합의 育成, 토지개혁이 施行되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중요한 問題는 經濟主體로서 國家의 政治행정세력에 건립지이며 또한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의 주체로서 역할할 國家의 政治행정세력이 보수적이며, 또한 生産하고 있다면, 經濟的 民族主義는 그 組織의 基盤을 喪失하는 것이다.

이같은 狀況下에서 經濟的 民族主義의 組織이 失敗하기에 이르면 「로스토프」 W. W. Rostow가 過渡期의 병증 (A disease of the transition) 으로 規定하는 이른바 共産主義가 그에 代

참할 唯一한 政治形態로서 자기주장을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W.W.Rostow :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 A nonco -
mmunist).

第 2 章 歪曲된 社會 構造

第 1 節 植民地的 社會 構造의 三類型

서구의 식민제국주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後進 未開地帶에 군사적 政治的 支配 權을 밑받침으로 하여 자본주의를 強制移植 하엿었다.

植民地에 移植된 그들의 자본주의는 군사적 權力支配를 背景으로 한 强압적인 獨점 자본주의였으며, 母國社會에서는 볼수없는 絶對的 物質主義와 무자비한 利己主義가 노골화될 자본주의였던 것이다.

이같은 자본주의의 强제추종은 植民地社會에 있어서 일대 衝激이 아닐 수 없었다.

植民地 社會는 이같은 행태에 더불어 移植된 近代의 외래적 요소와의 强제적인 접촉과정에 있어서 抵抗과 경격, 그리고 分해와 衝突을 通하여 부곡된 植民地構造로 變型되어 갔던 것이다.

즉 植民地의 社會構造는 先進國처럼 統一의인 “同質的 社會” (homogeneous society) 가 이룩될수 없었으니, 外래적인 “이질적 社會” (heterogeneous society) 로 變型된 것이다.

이와같은 異質的社會의 3個類型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A) 二重社會 (dual society)

J.H.Boeke가 (「인도네시아」) 社會를 分析하여 밝힌 社會構造이다. Boeke에 의하면 「인도네시아」社會는 “輸入된 서구자본

주의사회 * (animported Western Capitalism) 와 * 전자본주의적 농촌사회 * (A precapitalistic agrarian Community) 가 각각 고유의 상이한 社會經濟體制로서 同時に 共存하고 있는데 그것은 完全한 異質的인 關係의 * 二重構造 * 라는 것이다.

先進國의 同質的 社會도 近代化의 過程에 있어서는 과도적인 形態로서 * 자본주의화한 도시사회 * 와 * 자본주의적인 농촌사회 * 가 同時に 並存하였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內而的인 社會發展의 巨視的 과도적 形態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우케」의 이른바 이중사회라는 것은 그같은 社會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巨視的 過渡的 形態의 二重社會가 아니고 過渡的인 移行性을 지니지 않은, 完全히 異質的으로 並行하는 二重社會를 말하는 것이다.

植民地의 토착적인 社會는 외래적인 社會體制的 近代化의 分析作用에 對하여 異質的으로 對立하면서 토착社會의 周圍에 있어서 間의 分析作用이 進行됨에도 불구하고 그 核心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고유의 體制를 고수하려는 傾向을 나타낸다.

이같은 對抗的인 자기보존의 傾向은 그 近代化의 分析作用이 外래적인 侵略性을 內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傾向이라 하겠는데 先進國의 식민지 제국주의는 征服的인 格량을 加함으로써 토착社會의 停滯性을 더욱더 硬直化시키고 植民地의 後進社會를 피가 通하지 않는 實質적인 二重構造로 부곡시켰던 것이다.

(B) 複合社会 (plural society)

「피어니발」 J. S. Furnivall이 「버마」社会를 分析하여 밝혀낸 社会構造이다. 「피어니발」에 依하면 複合社会의 構造는 「유럽」인, 동양의국인(인도인), 토착인 三重의 계층으로 形成된다.

「유럽」인은 大企業의 經營者 또는 技術者로서 社会의 上층부를 이룩하고, 이른바 동양의국인 (foreign Asiatics)은 都充業者, 小充業者, 仲介業者 등으로서 中間층을 형성하며, 토착인민은 농민 또는 노동자로서 社会의 下층부를 이룩하고 있다.

그런데 동양의국인은 「유럽」인에 對해서는 仲介業者 또는 경쟁자로서 對하고, 토착인민에 對해서는 그 지방 經濟를 推進하고 토착민으로부터 近代世界를 중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 동양의국인의 역할에 依하여 토착사회에 對한 외부의 影響은 受호되므로 토착사회에 對한 分析은 止되므로, 따라서 그 三重의 複合社会는 比較的인 安定된 모습으로 維持되고 있다는 것이다.

(C) 多人種社会 (multi-racial society)

「프랑켈」 H. S. Frankel 이 南「아프리카」社会를 分析하여 밝힌 社会構造이다.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Cambridge)

「프랑켈」에 依하면 南「아프리카」의 多人種社会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經濟諸力의 浸透作用은 社会的 抵抗을 排除하고, 封建의 人 家父長的 토착사회 및 그 外의 分散된 人種된 乘團을 直線的으로

貫通함으로써 分析作用을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多人種社會는 閉鎖的인 二重社會와는 그 性格을 달리하여 開放的, 分析的인 것이 그 特徵이라 하고 있다.

第 2 節 二重社會構造의 分析

植民地的 社會構造는 제국주의 세력의 征服者들이 強制移植한 近代的 的利적 요소와 토착사회라는 이요소간의 접촉과정에서 抵抗과 通하여 이룩된 社會構造이기 때문에 그 構造의 一般的인 特徵은 이중사회구조로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前述한것 처럼 植民地的 社會構造로서 二重社會 複合社會 및 다인종사회의 三重의 有形이 主張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二重社會構造의 理論의 말로 植民地的 社會構造의 가장 一般的이며 또한 본질적인 理論으로서 規定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생각할때 「인도네시아」社會에 있어서의 봉호와 「아랍」인의 經濟活動을 중시하여 그들의 활동을 獨立的인 社會的 契機로 看做하고 그것과 「유럽」인 그리고 또 토착민과의 관계에서 三重의 複合社會構造를 主張한 「퍼어니발」의 理論은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이른바 동양의국인의 경제활동을 別個의 獨立的인 社會契機로 보지 않고 그것을 다만 的利적인 자본주의체제의 파생적 또는 下請負機關으로 看做하여 이중사회 理論을 主張한 「부르케」의 理論이 後進社會의 構造를 깊이 파고 든 妥當한 理論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켈」의 多人種社會의 理論 亦是 首肯할 수 없는 點을 內包하고 있으니 「프랑켈」은 南「아프리카」의 多人種社會가 開族의 分析이라고 看做하고 있으나 그 多人種社會도 傳統主義 (traditionalism) 와 部族主義 (tribalism) 의 政治運動이 植民主義에 抵抗하는 運動으로서 열렬하게 展開되어 왔다는 것을 본다면 그 社會 亦是 二重社會의인 性格을 갖춘 多人種社會가 規定하는 것이 妥當할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植民地의 社會의 一般의이며 또한 支配의인 構造로서 規定되는 二重社會의 理論을 「부우케」의 理論에 따라서 說明하려는 것이다.

植民地 移植된 植民地의 자본주의는 政治的 權力の 保護下에 강제된 자본주의로서 絶對的인 物質主義에 立脚한 強압的인 利權追求 동기에서 合理化된 近代的인 組織力과 科學的 技術로서 植民地의 經濟社會를 守護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征服的인 불평등한 요인의 作用에 처하여 토착하여 그 傳統的인 社會형태를 固守하면서 저항을 經하여 이질적인 對立社會를 이룩한 것이다.

「부우케」는 그 토착社會의 分析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촌락공동체를 그 “모델”로 삼은 것인데, 그곳의 村落은 傳統支配的인, 宗教的이며 精神的인,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的인 共同社會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共同社會에 있어서는 집단이 個人에 于先하여 存在하는 것이며, 成員의 생활행동을 決定하는 규범은 個人的 欲望이 아니고

社会的인 욕망인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個性性은 共同性안에 미분화狀態인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개인 행복보다 家族의 幸福과 共同體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며, 個人의 주택보다도 寺院이, 부모보다는 名譽가 이익보다도 權威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는 실습과 傳統이 支配하는 社會로서, 後進되어온 權威에 依하여 그 생활방향이 決定되는 「웨이버」 Max Weber 의 이른바 後進的 傳統的 支配의 社會이다.

이같은 村落共同體의 經濟는 自給經濟로서 土地가 가장 支配的인 생산요소이다.

土地에 對한 人口의 壓迫과 또한 均分相繼制는 필연적으로 土地의 細分化와 그에 따른 零細耕作의 形態를 招來하여 자본화가 필연적이다.

이같은 농촌사회에도 우편산물을 売却하기 爲한 시장이 存在하는데 그 시장은 다만 近代的 意味의 經濟機構라기 보다는 村民의 社會交場과 같은 것이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자본주의적인 「아시아」 농촌공동체의 特色에 對하여 도시는 토착대지 사층의 攔截지로 發達하여 소비도시적인 性格을 띠우고 있다.

一般的으로 「아시아」의 도시는 농민으로부터 입수한 물자를 一萬的으로 소비하고, 또 농촌의 지주들이 그들의 收入을 가져다가 手賣에 소비하는 소비도시적인 特性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도시에도 수공업은 發達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도시에

거주하는 地主와 地主, 그리고 또 그들에 隨從하는 도시 住民의 소비수요를 充足시키기 위한 생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自給自足 休耕로서의 農村의 수요를 高擧하여 發達한 것은 아니다.

즉 도시의 생산은 다만 도시생활자의 소비를 위한 생산이고 농촌을 시장으로 한 生産은 아니다.

이처럼 農村과 도시는 相互 탐색하여 社会的인 高擧(Social Chasms)이 파져서 經濟的인 相互交流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터전에 植民地 支配의 독점자본의 侵入한 것이다.

植民地 기업가의 독점자본은 수공업을 탈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토지자본의 공업자본화될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農村과 도시의 經濟的인 交流를 이룩할 民族的인 공업자본의 形成을 저지하고, 그 結果 農村과 도시 사이의 社会的 高擧를 더욱 깊이 파 놓은 것이다.

또한 토착 중산계급의 탈락과 불명등한 소득분배율에 입각한 토착민의 취재는 토착사회와 植民地 지배계급간의 齟齬를 급격히 증대시켰던 것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리하여 도시의 植民地 지배계급과 農村의 前近代的인 토착사회 사이에는 經濟的 齟齬와 더불어 容納할 수 없는 깊은 社会的 高擧가 굳어져 갔으니, 토착민의 近代的인 산업활동에 進出할 능동적인 의욕을 喪失하게 된 것이다.

토착민의 이와 같은 능동적인 의욕喪失은 挫折感과 더불어 社会活動 全般에 있어서의 硬直化를 가져 온 것이고, 또한 그같은 硬直化는 伝來의 강압과 劣勢성을 가중하기에 이른 것이다.

第3節 社会的, 文化的 民族主義

植民地的인 2중構造에 있어서는 植民地 지배계급과 토착인민과의 사이에 共同的인 社会意思가 成立될 수 없는 까닭에 植民地的 자본주의 社会와 近代的 토착사회는 適合할 수 없다는 社会的 高랑을 사이에 두고 이질적인 対立社会를 形成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을 經濟的으로 分析하면 2차산업의 欠如와 經濟的 盛衰의 증대는 植民地的 특점 자본의 일방적인 집중과 더불어 토착민족의 총체적인 양극화와 자원화, 그리고 또 硬直化를 가져오고 地域的으로는 가변화를 도시화 近代的인 農村사이에 經濟的인 高랑이 생기고 이중 經濟社会가 굳어지는 것이 었다.

이같은 이중사회, 이중經濟構造에 있어서, 同質社会로서 國民的 統攝이 이룩되고 또한 산업화를 先進社会를 토대로 하여 이룩된 經濟開發의 公式, 즉 “일정율의 純投는 그것에 對應하여 일정율의 所得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막위의 技術的 방정식을 적용하여 경제계획을 立案하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전기한 관련신고서는 이와같은 무의미한 接近方法에서 作成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先進國에서 산출된 經濟的인 技術方程式을 그대로 後進國에 適用하여 人口 1人당 平均 資本필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計算한 投資數額에 依하여 人口 1인당 所得의 일정율의 증가를 期하는 經濟開發 계획을 立案하였던 것이다.

그 계획서는 세계 後進地域의 人民을 總體的으로 計算하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中東(南, 中東「아시아」), 일본을

除外한 極東-總計 約15億2千7百萬名* 그들 人民의 1인당 國民所得을 每年 2% 증가시키기 爲한 자본총액을 約190億弗로 推定하고, 또한 公업화를 爲한 노동자 1인당 비용을 2,500弗로 計算하였다.

「프랑켈」은 그와 같이 先進國의인 公式主義에 사로잡힌 其의 古서를 가리켜서 “知的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비판하고 “後進國에서 石板을 깨듯이 닦아놓고 그위에 서구식의 經濟的 技術的 方程式을 그대로 써 넣으므로써 經濟開發이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서, 先進國에 統用되는 “투자일 소득증가”라는 公式이 後進國에서는 統用될 수 없음을 強調한다.

그리하여 「Frankel」은 後進社會에 있어서의 經濟開發은 일련의 광범한 社會的 經濟的 構造의 再編成過程의 一部로서 이룩될수 있는 問題라 하고, 그 같은 구조변혁의 과정은 住民의 信仰 性向 欲望에 依하여 促進 또는 저지되면서 展開되는 행동형의 성장과정인데 그것은 또한 “社會的으로 승인된 協동적인 노동의 새로운 型의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인 것이라 하고 있다.

이같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投資와 저축, 그리고 또 所得增加는 近代化된 國家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니 後進國 經濟開發의 問題는 새로운 行動型의 形成過程의 一部로서 社會的인 觀點에서 接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켈」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經濟開發을 社會構造의 變革問題와 분리해서는 論할수 없는 것이라고 力說하는데, 전지한

바와같이 「윌달」도 社会經濟學的인 觀點에서 社会構造의 變革問題
를 強調한다.

「윌달」은 植民地의 後進國에 있어서 植民地의 자본주의의 壓迫에
따른 前近代의 토착사회 硬直化와 더불어 이룩된 社會의 高梁은
經濟擴張의 效果로서 이른바 遠心的인 經濟의 파급效果 (Spreader-
effects) 를 저지하여 後進國經濟의 尙尙적 發展을 불가능하
게 하는 것이라 한다.

結論的으로 「윌달」은 前近代의 토착사회 硬直性을 타파하고 社
會의 經濟的으로서의 社會의 高梁을 극복하여 社會를 同質化하고 國
民的 統合을 이룩하는 일이 後進國 經濟開發의 先決條件이라 하면서
그 國民的 統合의 原理를 先決한 바와 같이 合理的인 民族主義에서
구한 것이다.

「프랑켈」 「윌달」 같은 학자들이 分析한 것 처럼 後進國의 經
濟建設과 그 發展은 社会構造의 變革을 그 先決條件으로 하는 것이
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後進國의 特質인 이중사회 高梁을 어떻
게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 近代의 農촌사회 硬直化된 劣勢
는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植民地의 後進社會에 있어서의 이중사회구조는 식민지 지배세력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造作된 것이었다.

植民地 지배층과 토착사회는 이질적으로 對立하게 되고 그 對立은
社會的으로 高梁을 파게 되었는데, 그 高梁은 위에서 論한바와 같이
社會의 硬直化와 劣勢를 초래하고, 經濟建設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필경에는 사회의 파멸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즉 그 고통은 멸망의 무를 暗示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무는 植民地 지배세력의 侵略에 依하여 國家的인 統合性과 사회 문화적인 統一性이 破壞되어 공동적인 社會意識가 欠如되기에 이르고, 또한 植民地 독점 자본의 壓迫에 依하여 토착의 중소 산업 階級이 沒落하여 經濟社會의 統合的인 紐帶契機가 무화될 거듭함으로서 暗示된 무인 것이다.

이같이 하여 暗示된 무는 後進社會의 멸망을 意味하는 無인 同時에 또한 救濟를 위한 요적인 創造의 바탕도 되는 것이다.

즉 이같은 無의 暗示와 더불어 그 無를 극복하여 異質的인 二重社會를 統一하는 새로운 社會的 文化的 원리로서 民族主義가 자각되기에 이른 것이고 또한 民族主義 理念의 담당 실천세력으로서 단중산계급과 代替되는 이론바 신중간계층이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植民地的 民族主義는 이처럼 植民地的 二重社會構造의 고통에서 形成된 신중간계층, 그중에서도 지식층을 그 주동적인 담당세력으로 삼는 理念인데 그것은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로서 처음에는 政治的 民族主義로 出發하여 經濟的 民族主義에로 展開되고 이제야 社會的 文化적인 民族主義로 심화될 段階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社會的 文化的인 民族主義는 植民地 統治의 遺産인 반 民族的인 社會的 文化的 形態를 匡正하고 硬直化된 전 近代的인 停滯性을 개화함으로써, 近代化된 自立的이며 同質化된 民族社會와 새로운 民族文化를 形成하여 國民的 統合을 이룩한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後進地帶 人民의 우수성은 그것이 植民主義에 依하여 硬
化되기 이전부터 傳承되어 오고 있는 고질인 것이다.

「에머슨」 Rupert Emerson 은 후진지대 人民의 傳統的인 形態
의 生活과 思考方式은 자기네의 생활환경을 好適하게 改造하여 가
려는 능동적 創造的인 意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하
고 있다.

또한 그는 서구의 산업혁명이 人間의 정신혁명의 產物이었다는
사실에 감하여 「아시아」에 있어서도 社會의 經濟發展을 爲해서는
민중이 타동적인 정신혁명을 이룩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기 않
을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그는 機械와 技術의 移植과 그 効果的인 活用은 그
것을 可能케 하는 정신적 협정과 社會構造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
아시아」의 事實을 指摘하고, 社會의 經濟的 進歩에 關해서 비관
적인 展望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에머슨」의 見解는 肯定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첫째로 산업혁명은 그것을 可能케 하는 정신 世襲社會구조가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는 點과, 둘째로 「아시아」의 民중은 그같은 준
비를 爲하여 그 타동적, 綿綿的인 停滯性을 清算하고 능동적, 창조
적인 精神으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새로운 社會構造를 形成해야 한
다는 點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민중의 그 硬直化된 歷史的, 몽토적인 停滯性
을 어떠한 方法으로 清算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의 停滯性은 계절풍지대 (monsoon vegin) 의 그 특유

한 풍토와 그 풍토의 소산인 전제적 封建主義에 依하여 풍토적 歷史的 고정화된 停滯性인 것이다.

그런데 전제적 封建主義의 정신구조의 변혁은 前近代性的 清算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즉 그것은 바로 近代化의 정신혁명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近代化의 정신혁명은 共同社会 (제1차 사회집단 = Gemeinschaft : Primary Social Groups)에서 個我를 해방하여 近代的인 結合社会 (제2차 사회집단 = Gesellschaft : Secondary Social Groups)를 形成하는 것을 意味한다.

近代的인 共同社会的 人間과 近代的인 結合社会的 人間的 차이는 전자가 傳統主義, 權威主義인데 對하여 後者が 合理主義, 平等주의이며, 또한 전자가 신분주의, 지방주의, 또는 族閥主義인데 對해서 後者が 능력주의, 민주주의 또는 世界主義인 點에 있다.

요컨대 近代化의 정신혁명이란 人間個我的 해방을 그 핵심으로 하는 혁명이라 할수 있는데, 「아시아」의인 청산도 이같은 個我혁명의 정신혁명과정에서 구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後進國 人民의 近代的인 극복하자면 人民의 個我를 우선 자유롭게 해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그같이 해방된 個我를 중심적으로 統一할 社会的, 정신적인 確立하는 일이다.

즉 이른바 “統一과 自由” (Unity and Freedom : Einheit Und Freiheit)를 同時過程에서 遂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구 先進國에 있어서는 이것을 歷史的 發展의 이단계의 作業으로서 遂行했던 것이다.

즉 그 전제군주국가 時代 200餘年에 걸쳐, 民族主義에 立脚하여 중앙정권적인 統一國家를 形成하고, 그같은 民族統一 國家가 完成된 後에 그 토대위에서 民主主義 혁명을 通하여 人民의 自由가 保障된 近代民主主義 國家가 이룩된 것이 었다.

이처럼 서구 先進國에 있어서 2 단계에 걸쳐서 遂行한 統一과 自由의 問題를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해방된 後進國에 있어서는 그 이계급을 同時과정으로서 遂行해야 한다는 「디렘마」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과 自由를 同時과정으로서 遂行하려는 後進國의 지도이념은 단순한 民族主義 일수가 없는 同時에 또한 단순한 民族主義일수도 없는 것으로서, 民族主義와 民主主義가 統一된 理念, 이를테면 民主民族主義 (democratic nationalism) 같은 理念으로서 表現될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실 後進國의 植民地 民族主義는 植民地 해방을 爲하여 부르짖었던 理念으로서 서구 先進國의 帝國주의적 侵略的 民族主義인 壓制的 또는 獨裁적 民主主義인 形態를 取함으로써 民主民族主義로 展開한다는 것이 그 필연적인 方向이라 하겠다.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統一, 그것은 또한 後進國의 그 고유한 民族文化와 서구 近代文化와의 統一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統一과 自由」의 同時實現問題는 이처럼 文化的으로는 동서문화

의 統一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 「디렘마」의 해결은 용이한 問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디렘마」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를 統一한 科學的인 이념체계가 形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록, 그같은 이념체계가 形成된다 하더라도 그 實踐이 또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實踐의 方法은 敎世紀의 長期間에 걸쳐 自然發生的으로 이룩된 先進國 近代化의 方法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實踐方法의 하나로서 提示할 수 있는 것은, 그같은 科學的인 이념체계를 休得한 社會의 「엘리트」가 그 理念에 따른 새로운 人間性으로 스스로를 改造하고, 年후에 社會의 주도세력으로서 成長하여 스스로의 「모델」的인 역할을 하면서 社會近代化의 作業을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植民地의 二重社會構造를 克服하고 近代化된 同質的 民族社會를 形成하는 原理로서 社會的 文化的 民族主義의 原理를 그 극장에 있어서 論한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民族主義에 立脚하여 國民的 統合이 이룩되고 民중이 우호성으로 부터 해방되어 合理的인 정신에 立脚하여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經濟建設에 參加하려 해도 전기한 바와같이 外國 자본 또는 그 압장으로서의 變증자본이 불평등화 요원으로서 중속 作用할 때에는 또다시 挫折感과 더불어 社會의 硬直化를 가져와 본래적인 그 우호적으로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한산업 및 독점자본 국유화정책, 保護貿易政策, 協同組合의 育成等 經濟的 民族主義에 立脚한 불평등화 요원의 排除와 방어가 필수 불가결한 問題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아울러 附記한다.

第 3 章 植 民 地 民 族 主 義

第 1 節 後 進 國 的 近 代 化 理 念 序 說

제 4 장의 제 1 절에서 제 3 절에 이르기까지 각국 近文化的의 理念과 그 과정을 3 단계로 나누어 分析하였다. 그것을 相互 關連적으로 본다면 一步앞서서 近代化한 先進國은 現在나 그 우월한 文化的, 政治的 및 經濟的인 先進性에 의거하여 당시의 後進國을 侵蝕하기 에 이르렀던 것이고, 따라서 또한 後進國은 그와같은 後進國의 不平等화요인의 作用에 의하여 다소간에 있어서 植民地化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後進國이 自主的인 近代國家를 建設하려 할 때에는 그 당시의 先進國의 理念을 超越한 새로운 近代化的 理念을 창조하여 우선 정신적인 主体性을 이룩해야 하며, 나아가서 그같은 主体性에 立脚하여 政治的獨立을 確立하고 後進國의 不平等화 요인에 對抗하면서 사회혁명과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사실 近代化的 세계적 과정에 있어서 後進國 近代化에는 언제나 後進國의 理念을 초극한 새로운 理念이 創造되었던 것이니, 영국, 「프랑스」, 美國 등의 自主民主主義理念에 對抗하는 形態로서 독일, 이태리, 일본 등의 國民主義的 자본주의이념이 形成되었던 것이고 또한 자본주의 一般에 對抗하는 理念形態로서의 「탐스·레닌」의 共產主義가 創造되어 그것이 선진자본에 依하여 침식되었던 後進國 「러시아」에 實踐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近代化的 歷史的過程에 강하여 現代後進國은 그 近代化에 있어

서 그 모든 先進國의 理念을 超克한 새로운 理念을 창조함으로써 先進國에 對한 정신적 主權성을 確立하는 것이 先決問題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에 그같은 새로운 방향의 理念이 形成되지 못할 경우, 現代 後進國이 정신적 植民地化를 청산하고 先進國으로부터의 불평등화 요인의 作用에 對抗하여 成功的으로 近代化를 완수하자면 모든 先進國의 理念에 對항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한 새로운 이념을 形成한다는 것이 그 선결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 後進國은 세계사에 있어서 最終的인 後進國이므로 그 새로운 理念은 先行된 모든 近代化의 理念을 超克하고 그 매듭을 짓는 理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같은 理念은 近代社會를 매듭짓고 現代社會를 始發하는 類의 理念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져서 收奪과 虐待에 신음하고 있는 後進國民族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現代化의 理念에 立脚하여 그 後進性克服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世界史에 기구한 「파라독스」(Paradox: 逆說)라 할 것이다.

現代 後進國의 이론바 植民地 民族主義는 이와같은 自黨에서 先進國의 모든 近代化의 理念을 超克함으로써 그것을 매듭짓고 現代化의 방향에서 그 이념관계를 展開해야 하는데 다음에 그것을 歷史的生成過程에서부터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2節 植民地 民族主義의 歷史的 社会的 本質

植民地 民族主義 (Colonial nationalism)는 서구 後進國의 17世紀以來의 이론바 植民地 帝國主義 (Colonial imperialism)에 依하여 계승되었던 후진지대의 植民地 民族의 자주독립과 국제적인 主權의 평등을 달성하고 政治的 經濟的 및 文化的으로 스스로를 解放하려는 민족분동인 것이다. 이와같은 植民地 民族主義운동은 제1차 세계大戰後, 즉 1918년 1월 8일의 美國 「윌슨」大統領의 이론바 14개조 (President Wilson's Fourteen Points)에서 闡明된 民族自決主義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의 부르짖음과 더불어 불꽃처럼 後進植民地帶를 휩쓴 것이었다.

그러나 「윌슨」이 제창한 民族自決主義는 동구 및 「발칸」에 있는 「유럽」 弱少諸民族의 民族國家의 獨立에 적용되었을 뿐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지대의 민족해방운동에 적용될 것은 拒否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經路로서 希望에 부푼 植民地 民族主義운동은 또다시 絶望에 빠졌던 것인데, 1917년 10월 「프로레타리아」혁명에 成功한 「레닌」을 지도자로 하는 「러시아」의 공산당에 1920년 7월 「콤민테른」 (Comintern) 제2회 大會에서 「民族 및 植民地問題에 關한 테에제」를 採択함으로써 植民地 民族主義 운동을 「프로레타리아」세계혁명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든 것이다.

共産主義는 계급사회주의로서 民族主義와는 相異한 것이며 또한

國際共產主義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世界的인 規模에서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植民地 民族의 해방을 達成하려는 植民地 民族主義와는 그 性質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共產主義는 서구 자본주의의 打倒를 爲한 국제적인 운동으로서 植民地 民族主義 운동을 利用하려 들었으니 국제공산주의는 서구자본주의계급의 手中으로 부터 植民地를 조치하여 獨立시킨다면 그들 자본가 계급은 必然的으로 沒落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大体로 1920年에서 1930年에 걸쳐서 一部 植民地 民族主義 운동은 그같은 심산의 국제共產主義에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獨立을 達成하려 하였고, 그 結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利用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2차 世界大戰後 共產陣營의 세력이 強大하여져서 世界가 兩大陣營으로 分裂하고 共產主義自体가 제국주의적 性格이 노출됨에 따라서 植民地 民族主義 운동은 共產主義와 絶緣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共產主義는 제2차 世界大戰後 그 제국주의적 性格을 노골화하여 主위의 약소국을 위성국화하고 許多한 분쟁과 비극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러시아」의 共產主義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해방의 理念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와 같은 大陸國家의 後進性克服의 理念에 불과하며 또한 그들의 이른바 국제공산주의는 「슬라브」 民族의 세계제패를 위한 새로운 形態의 제국주의라는 것을 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 共產主義는 後進國에 있어서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의

盟友가 될 수 없게 된 것이고, 도리어 반대로 共產主義에 의 지는 그들의 위성국으로서의 植民地 종주국에 되고 만다는 것을 意味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世界史의 변형에 있어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시대—後進國이 그 自主性을 確立하고 그 植民地的 後進性을 克服하자면 자본제국주의에 對抗할 뿐만 아니라, 공산제국주의에 對抗할 새로운 지도이념을 창안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독자적인 路線으로서 우선 국제 정치상에 있어서 形成된 것이 이른바 비동맹중립주의이다.

비동맹 (Non-alignment)은 對立하는 美, 「소」 兩大陣營의 어느 편과도 同盟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兩大陣營의 투쟁과 紛糾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中立主義 (mentralism)은 비동맹과 같은 소극적인 立場에 그치지 않고 一步 나아가서 對立을 해소시키고 紛糾과 전쟁을 防止하여 세계평화를 促進하려는 積極的인 態度와 政策을 意味한다.

이같은 비동맹 中立主義는 印度의 「넬루」 Pandit Jawaharlal Nehru가 提唱하고 「아랍」 共和國의 「나셀」, Canel Adaci Nasser가 열렬한 同盟者로서 등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 新 生國의 主流的인 국제정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같은 비동맹주의를 「부렛허」 M. Brecher는 外部的 內部的 요인으로 分類하여 상세히 分析하고 있다. 즉 外部的 요인으로서는 국제정치의 性格, 핵무기 出現, 전쟁개념의 변화등을 들고, 內部的 요인으로서는 印度의 지정학적위치, 兩陣營으로 부터의 經濟開發資金

獲得의 필요성, 인도수 및 仏敎의 兩大 「이데올로기」에 처한 불평부당한 寬容性등으로 分析한다.

그러나 이같은 分析은 주어진 조건의 分析에 불과한 것이고 後進國이 지향하는 目的과 의욕을 分析한 것은 아니다.

後進國이 지향하는 目的과 의욕의 觀點에서 생각컨대, 비동맹중립주의는 양대진영이 對立부쟁하는 국제정치의 바탕위에서 소극적으로는 스스로를 방어하여 그 自主獨立性을 確保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形態의 제국주의를 소멸시키면서 道의와 광명의 평화를 促進하려는 意慾을 表明하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국제정치사상에 있어서 이 처럼 비동맹중립주의로서 스스로를 表現하고 있는데 그렇다던 植民地 民族主義는 그 理念의 本質을 어떻게 展開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음에 檢討할 필요가 있다.

「본」에서 Macmahon Ball은 植民地 民族主義를 反抗的인 운동이라 規定하여 첫째로 民族自決과 獨立의 쟁취를 爲한 政治的 反抗운동이고, 둘째로 학대와 資源으로 부터의 해방을 爲한 社会的 經濟的 反抗운동이며, 셋째로 「유럽」인 즉 白色人種에 對한 有色人種의 人種的 反抗운동이라 하고 있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先進國의 식민지 제국주의에 對抗하여 자주독립과 主權平等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出現했던 것인만큼, 「불」이 關한 것과 같이 그것은 필연적으로 반항운동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또한 그것을 부정적 排他的, 對立爭鬪的

性格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植民地 民族主義의 본질을 소극적으로 다만 그 反抗的 非타적인 面만 관계함으로써 그 적극적인 참다운 본질, 즉 민족해방이라는 建設的인 目的의 面을 隱蔽해서는 안된다.

사실 植民地的 民族主義는 그 獨立을 爭取하기 까지는 反抗的인 面이 強하게 나타났던 것이지만 일단 獨立이 爭取되고 난 후에는 그와 같은 소극적인 面은 後退하고 민족해방이라는 積極的인 建設 面이 「크로즈 업」(Close-up)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植民地的 民族主義의 본질은 민족해방이라는 적극적인 建設 面에서 관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植民地 民族主義는 식민제국주의에 依하여 抑壓 收奪당한 植民地 民族의 해방을 그 第一義的 課題로 指定하는 理念인데 이 點에 있어서 個人의 解放을 至上目標로 삼고 있는 이른바 自由民主主義와 그 본질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 것이며, 또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그 至上目標로 삼아 이른바 階級社會主義인 共產主義와도 그 本質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이 처럼 민족해방을 그 제일의적인 課題로 삼는다는 點에서 自由民主主義, 階級社會主義와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個人의 해방 그리고 또 階級的 해방과 관계없는 것은 勿論 아니다.

民族의 해방이란 그 실질에 있어서 個人에 그리고 또 계급의 해방을 通하여 이룩되는 것으로서 그와같은 個人과 階級的 해방을 內含하지 않는 民族의 해방이란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植民地的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에 있어서 처럼 個人을 絶對視하는 抽象的인 허구의 概念을 排除하고 民族社會의 基盤위에 存立하는 具體的인 個人을 自覺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民族主義는 民族의 全体社會를 有機的인 全体者로 規定하고, 그것을 絶對視하는 이른바 「팻시즘」의 全体主義와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팻시즘」의 全体主義는 有機體說에 立脚하여 全体앞에 있어서의 個人의 獨立性을 認定하지 않는 것인데 對하여, 植民地的 民族主義는 尙古적 社會이론에 立脚하여 個人의 獨立性을 保障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社會的인 伸張을 主張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植民地 民族主義는 「팻시즘」이 獨裁주의를 嚮하는에 反하여 個人解放의 原理로서의 民族主義를 指向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植民地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를 다만 부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具體化함으로써 이른바 止揚하려는 것이요, 또한 「팻시즘」의 有機體說에 立脚한 獨裁的이며 侵略的인 民族主義를 理性化하고 實化함으로써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克服하려는 것이다.

또한 植民地 民族主義는 階級社會主義 思想, 즉 노동자階級만을 絶對視하고 餘他的 階級 내지 계층을 無視하여 다극적인 階級社會의 形成을 強行하려고 하는 그 偏倚된 思想을 부인하는 것이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階級社會主義 思想, 즉 노동자계급만을 相對化하고 평등화함으로써 그것을 總體的으로 해방하고 그 해방된 機能

을 民族社會의 基盤에 있어서 民主主義的으로 統合함으로서 多樣的
創造的 社會을 이룩하려는 것이니, 植民地 民族主義는 階級社會주의
를 부정적으로 超克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植民地 民族主義는 個人至上主義, 階級至上主義, 民族至
上主義 등 一切의 至上絶對主義는 부인하지만, 그러나 民族社會의 基
반위에서 個人, 그리고 또 모든 階級, 階級을 解放하여 그 獨自性
과 機能性을 伸張함으로서 創造的 社會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植民地 民族主義는 해방의 원리인 民主主義의 形態로
展開되어야 하는데, 그 民主主義 形態는 自由民主主義처럼 個人의
法律的, 形式的인 해방에 그치는 民主主義의 形態가 아니라 個人과
階級을 실질적으로 解放하는 이른바 經濟的 社會的 民主主義 形態
가 아니면 안된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이와 같은 志向에서 政治的으로는 議會制
民主主義를 採擇하여 個人의 自由를 最大限度로 保障함으로써 民
族을 그 硬화된 劣等性에서 解放하려는 것이고 또 經濟的으로는
기초산업과 獨점산업의 統制 내지 國有化를 通하여 先進國의 불
평등화요인의 作用에 對抗하고 産業을 專斷독점 資本으로부터 保護하여 國
民의 經濟活動의 自由를 保障하고 나아가서 民族을 資源으로부터 解放하러
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社會的으로는 철저한 社會保障制度를 確立하여 分
配의 階級적 差別을 除去함으로써 실질적인 階級해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植民地的 民族主義의 指向하는 바 그 방향은 서구 先進
國에 있어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대중民主主義 (mass democra-
cy)의 방향과 同一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先進國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대중民主主義는 「부르조아」民主主義인 自由民主主義를 초극하려는 새로운 民主主義로서 계급주의를 거수한 國民主義의 基盤 위에서 民主主義를 철저하게 또한 完全한 形態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民主主義는 民主主義를 철저하게 또한 完全한 形態로 이룩하기 爲하여 議會民主主義의 確立을 通하여 등장자본을 統制 내지 국유화하고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先進國에 있어서 이같은 대중民主主義의 기초세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부르조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階級 사이의 中間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이른바 「화이트·칼라」(White Collar)의 新중간계층이다.

그런데 後進國에 있어서 그 植民地 民主主義를 담당할 社會의 주도세력을 亦是 前述한 바와 같이 중간계급의 沒落과 더불어 새로이 形成된 新중간층인 지식층인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에서 後進國의 植民地 民族主義는 그 理念의 방향에서 또한 그 담당세력에 있어서 先進國의 대중 民主主義와 同一한 것인데 다만 後進社會와 先進社會의 歷史的 과정과 社會發展의 차이에서 그것이 後進國에서는 植民地 民族主義로서 表現되고 先進國에서는 대중민주주의로서 表現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植民地 民族主義와 대중民主主義는 다 같이 「부르조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계급의 對立, 自由民主主義와 共産主義의 對立 그것의 世界的인 展開形態로서의 兩大陣營의 体制的 對立이라는 同一한 世界史의 基盤에서 창조되고 있는 새로운 생활이념으로서 그

두개의 理念은 相互 呼応하여 兩大陣營의 體制對立을 超克하고 새로운 光明의 世界史를 現前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본질의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을 공산전야에서 我田引水格으로 歪曲하고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前述한 바 같이 「소련」 공산당은 1920년 「콤민테른」 제2차大會에서 民族 및 植民地 問題에 關한 「테베제」를 선언하고서는 植民地 民族主義 運動을 「프로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利用하려던 것이었다.

「레닌」은 後進國의 民族해방운동이 眞正하게 혁명적일 경우에는 그 解放운동이 비록 「부르조아」 民主主義運動의 形態를 取한다할 지라도 공산당은 그같은 運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여 「소련」 공산당은 제1단계에 있어서 「부르조아」 民族主義運動을 支援함으로써 植民地의 解放과 獨立을 達成케 하고 제2단계에 가서는 그같이 植民地 支配勢力과 代替된 「부르조아」 民族主義 政權의 樹立에 協力하며 제3단계에 이르러서 그같은 民主主義 政權의 타도와 더불어 「프로레타리아」 공산政權을 確立한다는 段階論的 戰略을 構想함으로써 植民地 後進國에서 直線的인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企圖하지 않고, 過渡期的인 호심형태로서 「부르조아」 民主主義 혁명단계를 設定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戰略에서 제2차 世界大戰後 獨立을 達成한 植民地 後進國의 民族主義 政權의 樹立에 協力하는 세력을 取한 것이다.

「소련」 공산당은 이같은 戰略과 택세에서 1960年 11月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大會를 開催하고 新生獨立 民族主義 政權을 共產化하기 위한 過渡段階 政府形態의 理論的 「모델」로서 民族的 民主主義國家 (National democratic state) 의 形態를 規定하였던 것이다.

「소련」共産黨은 新生獨立國의 民族主義 政權을 無條件 그같은 民族的 民主主義 國家로 規定한 것이 아니요, 그 新生獨立國의 政權의 反「유럽」的, 비동맹주의, 서방측의 經濟的 영향력의 極小化, 自主的인 國家經濟 發展, 공산당에 對한 寬容이라는 제조전에 合당될 경우에 한해서 공산화의 進단계로서의 民族的 民主主義國家로 規定하여 그것을 支援하고 있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이와 같은 「소련」공산당의 戰略에 對하여 兇공의 모택동은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은 그의 저서 「新民主主義」에서 後進國을 共產化하는 過渡段階의 形態로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數個의 혁명적인 階級的 연합 獨재의 공산당이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소련」공산당의 兇공주의 新생國에 對한 協助의 援助政策에 反對함으로써 그것이 또한 이른바 中, 「쏘」理念紛爭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中, 「쏘」理念紛爭이 이른말은 그것과는 別도로 新生獨立國의 民族主義 政權에 對한 「소련」공산당의 民族的 民主主義 規定은 왜곡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皮肉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述한 바와같이 新生國 民族主義政權은 植民地 民族主義에 立脚한 政權으로서, 植民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의 新중간층을 그 社會的 기초세력으로 하여 共產主義의 「프롤레타리아」계급주의를

부정하고 초극적 民族主義에 立脚한 대중民主主義를 志向하려는 理念이었다.

이같은 植民地 民族主義는 본질적으로 공산화의 과도단계로서 規定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共產主義를 거차원의 理念形態로 간주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超克하려는 反共產主義的인 志向을 내포하고 있는 理念인 것이다.

이와같은 志向을 내포하기 때문에 植民地 民主主義는 소극적으로 공산 총국주의 까지도 포함한 모든 평행의 立場의를 배격하고, 적극적으로 양대단이 체제적 對立을 초극하려는 이른바 비동맹중립주의를 포괄하기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고찰에서 「소련」공산당이 식민지 民族主義에 立脚한 新生國 政權을 民族的 民主主義 政權으로 規定한 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왜곡된 規定이었음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植民地 民族主義는 그 民族主義理念의 표명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그같은 我田引水格의 규정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른바 民族的 民主主義보다도 民主的民族主義 (democratic nationalism)의 명칭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語句上의 주의가 필요하게 된 것 같다.

第3節 植民地 民族主義의 展開形態

前節에서 植民地 民族主義의 본질이 世界的 潮流에 制約되면서 植民地的 後進國의 歷史的 社会的 特殊性을 반영하여 獨自의인 理想으로 形成되고 있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같은 植民地 民族主義의 본질의 전개는 객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에 불과한 것이고 그 주체적인 측면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現代 後進 各國은 그 植民地 民族主義를 世界史의 制約과 社会的 特殊性을 반영하여 대중民主主義의 方向에서 새로운 「패턴」의 民主主義 形態로 전개하고 있으나.

다만 그같은 民主主義의 주체적인 정신적 토대는 각 民族의 文化的 전통에서 구하고 있다.

民主主義는 언제나 일정한 주체적인 정신적 토대 위에서 이룩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서구의 이른바 자유民主主義도 「웨에바」 Max Weber가 해명했듯이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基督敎의 정신적 토대 위에서 이룩된 民主主義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서구 民主主義에 있어서 그 제도와 技術은 빌려올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정신적 토대는 移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後進國이 그 植民地的 民族主義를 民主主義의 형태로 선개하려 할 경우, 民主主義의 제도와 技術면에 있어서는 서구 文化를 받아들일지언정, 주체적인 정신적 토대위에 있어서는 그 문화적 傳統에서 독자적인 사상을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처럼 後進國이 그 文化的 伝統에 立脚한 獨自的인 정신적 토대위에 서구 民主主義의 文化를 受容하여 統一한다는 것은 이른바 단순한 서구화 (Westernization)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서문화의 종합統一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서구 近代文化를 초극한 새로운 現代文化를 창조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토인비」 Arnold Toynbee 도 서구의 民主主義 文化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강력한 문화적 放射 (cultural radiation) 에 처하여 기독교 정신에 立脚한 서구인민의 창조적으로 그것을 受容함으로써 이룩된 文化라 하고, 今後 서구문화와 世界와의 접촉에서 새로운 文化가 창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斷言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다음에 現代 後進 各國의 植民地的 民族主義가 그 傳統文化와 서구 民主主義 文化를 綜合하면서 전개하는 民主主義의 구체적인 형태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인도의 植民地 民族主義가 전개되는 民主主義의 정신적 토대는 「힌두이즘」 (Hinduism) 의 종교정신인 것이다. 제 3 장 제 3 절에서 論한 바와 같이 「힌두」 (Hinduism) 教의 종교개혁은 19 세기 초두에서 始作되었던 것으로서 「로이」 Raja Ram-cy mohuu Roy, 「다야아난다」 Swami Dayananda Saravsati, 「라마마크리슈나」 Ramarkrshna Paramahansa 등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연이어 배출하였던 것이다.

이 개혁자들은 傳統的인 「힌두」 教의 종교적, 신앙, 형식적, 전리주의 등을 타파하고 古代 인도의 「베에나」 (Vedas) 철학으로

환원함으로써 「힌두」교의 진정한 종교정신을 顯彰하려한 것이었다.

이들은 「베에다」야 말로 神의 영원한 별이라 하고,

그것은 종교적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그같은 「베에다」의 理性的인 해석에 입각하여 「힌두」교를 과학적 정신과 배치되지 않는 근대종교로 개혁하였으며, 또한 人間性的의 회복을 고창함으로써 그것을 近代人間的의 종교가 되겠음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개혁된 「힌두」교는 인간성의 회복을 고창하였지만 그러나 서구에 있어서처럼 개인주의의 인간의 존엄성을 고창한 것이 아니고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단위로서의 人間의 존엄성을 고창하였던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 서구 個人主義思想에 처한 인도의 공동체제 사상의 特異性を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종교개혁운동과 더불어 또한 「차텔지」 Bankim Chandra Chatterji, 시성 「타골」 Sir Rabindranath Tagore 등 거구들이 나타나 전통인도사상의 부흥운동을 이룩함으로써 인도민들에게 民族的인 정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19세기 초두로부터 시작한 정치개혁운동과 「힌두」문화의 부흥운동은 20세기의 「간디」 Mahatma Gandhi, 「네루」 Pandit Jawaharlal Nehru 등의 政治的 民族主義 운동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인도의 民族主義 운동은 제1차大戰後 「간디」를 지도자로 하여 대중운동화하고 치열의 도를 기하였으며 그 운동을 드디어 제2차

세계大戰後, 에 1947년 8월 15일, 인도연방(Union of India)의 독립으로서 결실하였었다.

① 獨立後 인도의 民族主義는 「네루」의 지도에 依하여 이른바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를 지향하는 民主主義 形態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議會制 民主主義의 確立과 더불어 政治的 民主主義를 通한 經濟的 社會的 民主主義의 실현을 企圖하고 있다.

② 인도의 民主社會主義는 「베에다」哲學에 立脚한 民族主義의 精神적 토대위에 전개되는 理念으로서 그것은 兩大陣營의 체계적 對立을 조극한 이른바 제3의 길(the third way)을 개척하려는 것이고.

진절에서 論한 바 비연방증립주의의 사상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인도의 식민지 民族主義는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의 精神적 토대 위에서 서구 民主主義 文化를 추구하여 새로운 「페틴」의 民主主義의 形成에 협력함으로써 後進國에 있어서 植民地 民族主義가 전개되어야 할 독자적인 路線을 시범적인 제시로 보인다.

③ 「파키스탄」의 回敎의 종교정신에 立脚하여 서구 民主主義 理念을 수입함으로써 近代的인 民主國家를 建設하려는 것이다.

「파키스탄」 回敎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의 1956년 헌법의 前문에 「大慈大悲한 (알라아) Allah의 이름에 있어서……全宇宙를 支配하는 主權을 全能한 「알라아」에만 귀속한다.

「알라아」에 依하면 命命된 한계 내에서 「파키스탄」國民이 행

사할 權威는 신성한 信託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파키스탄」은 회교의 종교정신에 立脚하여 건국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리·카안」 Liaquat Ali Khan이 지적하다싶이 이른바 신정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회교의 종교정신을 새로운 「패턴」의 民主主義理念으로 發展시켜서 近代的인 民主國家를 建設하려는 것이다.

④ 「파키스탄」의 회교民主主義

(Islamic democracy)는 단순한 政治的 民主主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經濟的, 社会的, 즉 실질적 民主主義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그 헌법 전문 제2항에서 「파키스탄」은 「사회정의의 회교의 제원칙에 기초를 둔 民主國家임을 선언하고 있다.

⑤ 회교원칙에 입각한 社會主義의 구체적 내용은 그 헌법 제3부 중의 제29조에 規定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으로서 부, 생산 수단 및 분배의 소수자에의 집중방지, 강제적 社會保險에 의한 社會保障의 公同등을 들 수 있다.

⑥ 회교정신을 새로운 民主主義 이념으로 發展시키는데 있어서는 종교혁명운동이 先行되어야 했던 것이니 19세기 초두 (사이도·아흐마드·카안 * Sayyid Ahmad Khan (1889 ~ 1898)에 의한 回敎의 淸敎的인 개혁과 近代운동이 있었고 20세기에 이르러 “모함마드·이그말” Mohammad Ighal (1873 ~ 1938)에 의한 回敎精神의 近代哲學的인 해명과 人間해방의 民主的인 원리의 개명이 있었던 것이다.

⑦ 「이그말」은 그의 저서 「回敎에 있어서의 종교사상의 개조」

에서 「니체」 Nietzsche 의 超人哲學과 「베르그송」 H. Bergson 의 창조적 進化哲學의 입장에서 회교정신에 近代的 혜택을 시도하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회교의 진정한 力動的인 정신을 구명하였던 것이다.

「이끄발」은 「회교의 根本原則을 現代生活의 變化되고 있는 제 조건에 따라 새로이 해결한다는 것은 全的으로 正當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교」는 人間 生活을 時間에 있어서의 持續的 運動이라 생각 하는 동적인 世界觀에 입각하는 것으로서 靜態적인 世界觀에 입각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책 함으로서 그 종교정신의 近代化를 시도 하였었다.

「이끄발」은 또한 회교世界는 투철한 思想과 新鮮한 經驗을 具備하여 그들의 과제인 改造의 일에 용감히 매진해야 하는데 그 改造의 일은 現代生活의 제 조건에 단순한 적응한다는 것 이상의 심각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 심각한 면이란 우주의 정신적 해명과 個人의 정신적 해방인 간사회의 進化를 이끄는 世界的 意義를 지닌 기본적 원리의 해명 등의 問題인데 이 問題에 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교의 宗教的 直理라 하였다.

이와같이 종교개혁운동에 立脚하여 형성되고 있던 이른바 회교民主主義는 1958年 東「파키스탄」과 西「파키스탄」간의 지방주의 (Provincialism) 의 尙殘 때문에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그 「프로빈셜리즘」의 尙殘은 헌법도발 및 정당의 해산과

議會政治의 충단을 가져오고 「아유브·카안」 Ayub Kahn 장군의
군부독재정치를 등장시켰던 것이다.

「아유브·카안」 장군은 군부혁명의 最終目的은 國民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國民에 봉사할 수 있는 民主主義를 회복하는데 있는
것이라 성명하고 이른바 기초적 民主主義 (basic democracy) 의
제도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기초적 民主主義의 제도는 「파키스탄」 國民의 85%가 문맹이며
또한 촌락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감하여 중정의 전국적 국회의원
선거를 정지하고 이중적인 간접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 및 大統領
을 선출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의 기초 민주주의는 政治文化의 수준이 저급한 나라
에 있어서 불가변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같은 제도는 민중의 정치문화의 향상과 더불어 止揚되
어야 할 과도적 단계의 民主政治 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
겠다.

다음에 또한 같은 回教徒 사회인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스카르노」 Sukarno 大統領이 非宗教的인 近代國家의 建設을 志
向하며 1945年 건국의 기초로서 5대 원칙, 즉

- (1) 신에의 信仰
- (2) 民族主義
- (3) 人類主義
- (4) 民權主義
- (5) 社會的 正義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건국 5대원칙의 정신에 立脚하여 이른바 敎道民主主義 (guided democracy)를 樹立한다는 것이 「스카르노」의 主張이다.

敎道된 民主主義라는 것은 敎道성이 결핍된 民主主義는 無정부주의가 되기 마련이고 반대로 民主主義 없는 지도 체제는 독재주의가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無정부주의도 독재주의도 피한 제3의 길로서 구상되고 있는 民主主義라는 것이다.

「스카르노」는 이같은 敎道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촌락민주주의의 傳統인 相互協力精神 (Gotong Rojong)과 서구적인 職能대표의 思想을 結合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의 民主主義를 形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敎道민주주의의 사상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으니 첫째로 그와같은 “고통, 로용”의인 職能계 民主主義의 개념으로부터 敎道된 民主主義의 개념이 도출되는 理論的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자기 相異한 사회적단체의 의견이 언제나 “고통, 로용”的 協同一致에 귀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에머슨) R. Emerson이 지적하다시피 「아시아」의 傳統的인 村落民主主義는 個我的 自覺이 없는 공동사회집단 토대위에 형성된 民主主義 관습으로서 그것은 個我的 자각과 더불어 이룩된 자유평등의 近代的인 이익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제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하거늘 이른바 敎道民主主義는 近代的인 이익사회의 構造위에

서 선출되는 직능대표간에 진군대적 공동사회의 결의 形式인 “고
통, 로용” 的인 協同一致를 求하려는 것이니 그것은 이윤배반의 불
가능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교도민주주의는 허다한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같은
교도주의적 近代의인 이익사회 구조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 成立될
수 없는 協同一致를 교도성의 입장에 서서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
을 民主主義 보다도 專裁主義가 되기 마련이다.

이상에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문화진통에 입각하
여 식민지 民族主義의 本質을 전개함으로써 形成하려하고 있는 새
로운 「패턴」의 民主主義를 論評하였는데 여지의 아. 제국들도 그
정치문화가 저급되며 비록 처음부터 民主主義 형태를 通하여 그
植民地 民族主義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으로서 그 志向
하는 바 방향은 새로운 형태의 民主主義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
다.

Gotong Rojong 의 民主主義는 相互協力 的인 精神土台 위에서
「무샤와라」 (musjawarat : 相互問의 이야기) 와 「두피캣드」 의
방법에 依하여 즉 相互 이야기 함으로서 意見一致하는 方法에 依
하여 모든 紛爭을 해결하는 民主主義를 意味한다.

(가) 民主主義를 실현할 수 없는 狀態에 놓여 있는 제국에 있
어서는 次善의 길로서 군부가 독재정권을 樹立하고 植民地 民族主
義를 새로운 形態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미
개한 民族의 보편적인 路線으로 되어 있다.

(나) 植民地 民族主義는 비록 과도적으로 독재체제를 취하고 있

기는 하나 「팻시스트」가 부르짖던 侵略的인 民主主義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民族主義라는 것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팻시스트」가 그 내막에 있어서는 독점자본가의 앞잡이로서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착취 탄압하고 국제적으로는 호진적인 侵略主義였다는데 反하여 군부독재가 志向하는 植民地 民族主義는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기 위한 民族主義인 것이고, 경제개발과 國民소득을 향상시키기 爲한 民族主義인 것이며, 또한 侵略的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民族主義인 것이다.

오늘날 亞·阿諸國에 새로이 출현한 군부독재의 방향은 대략 이와같은 것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군부독재가 부패한 右翼獨裁내지 左翼獨裁로 기울어질 危險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자주적인 民族國家를 建設하여 새로운 形態의 民主主義로 나아갈 수 있는 橋梁의 役割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시 되는 바 없지 않다.

그러나 하여튼 新生 亞·阿諸國이 모두 다 국제평화주의에 立脚하여 새로운 形態의 民主主義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R. Emerson ; Problem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Southeast Asia, Pacific-Affairs Dec 1953)

第4節 指導理念과 精神革命

前節에서 植民地 民族主義의 전개 形態를 論하였는데 植民地 民族主義는 後進各國의 전통적 文化와 서구 民主主義 文化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民主主義를 志向하여 발전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傳統的 文化中에서도 特別히 그 傳統的 宗教가 새로운 生活形態의 立脚할 精神的 土臺로서 役割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즉 「힌두」教, 또는 回教社會에 있어서는 宗教가 민중의 生活를 統制 指導하는 權力으로서 歷史적으로 確立되어 있는 것이니, 그와같은 宗教에 민중을 統一하는 權力을 구하고, 또한 그 宗教의 近代化를 適用하여 精神혁명과 새로운 生活形態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다.

문맹률이 80%를 넘는 後進社會에 있어서 理念的인 近代化보다도 宗教生活의 近代化를 통한 精神혁명의 수행과 後進性 克服을 도모한다는 것을 가장 效果的인 방법일 뿐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宗教를 통한 민중의 統一과 教導는 또한 결점을 수반하는 것이니, 그와같은 宗教에 민중을 統一하는 權力을 구하고, 또한 그 宗教의 近代化를 통하여 精神혁명과 새로운 生活形態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宗教를 통한 민중의 統一과 教導는 또한 결점을 수반하는 것이니,

첫째로 宗團主義 (Communalism)에 立脚한 민중의 배타적인

분열을 가져 올 수가 있으며, 둘째로 宗教改革을 통한 宗教의 近代化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亦是 그 宗教에 近代의인 요소가 殘存하여 민중의 近代化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다.

이같이 宗教는 여러가지 결점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 개혁과 민중의 정신혁명과도 그 기준에 있어서 近代的인 새로운 理念에 依存해서 비로서 이득되는 것이므로 後進國 近代化에 있어서는 宗教를 그 정신적 土臺로 삼느니 보다도 차라리 새로운 지도 理念을 정신적 土臺로서 確立하는 것이 타당함직 한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로서 現代 後進國은 그 近代化에 있어서의 정신적 土臺로서 宗教 보다도 새로운 指導理念을 確立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指導理念인 植民地 民族主義의 기초 理論으로서의 世界觀이 아직껏 自覺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같은 世界觀에 立脚한 科學的 理論 체계는 더구나 심구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植民地 民族主義를 뒷받침 할 世界觀인 變증법적 唯物論을 同時에 超克한 漸次的인 새로운 價值, 또는 信念 체계로서 自覺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植民地 民族主義의 世界觀은 그 內部에 있어서 後進國의 그 傳統的인 文化와 서구문화를 綜合 統一하여 새로운 現代의인 民族文化를 造成시켜야 하며, 또한 科學的 理論 체계의 심구와 더불어 민중의 정신혁명이 必須不可欠한 基本的인 관계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데올로기」(Ideologic) 時代의 종언을 부르짖으면서 그와같은 基本的인 課題의 해결을 時代錯誤的인 것으로 看做하고 그것을 度外視하는 思潮가 흐르고 있으니,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데올로기」時代의 終焉이라는 말은 「아롱」 Raxmand Arom이 그의 「知識人の 阿片」이라는 저서의 結論에서 論한 말이다.

이같은 「아롱」의 말은 後進國에서 輸入된 先進國의 이론바 「비헤이비어리즘」(Behaviorism: 行態主義)의 科學思潮와 더불어 相乘作用을 일으켜서 物지각한 後進國의 「인텔리」의 流行語가 된 것이다.

그같은 「아롱」의 말은 「아롱」自身이 弁明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 依하여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 誤解되고 있는 중요한 點을 「아롱」自身의 弁明에 따라 요약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라는 論說을 從來의 觀點에서 본다면 社會主義的이라 看做될 수 있으리 만큼 社會化가 進行된 社會로 發展된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이데올로기」인 自由主義의 主張이나 또는 「프로레타리아」·「이데올로기」인 自由主義와 共產主義의 主張은 다같이 과거와 같은 정열적인 매력을 喪失하고 있다는 것을 論하였을 뿐인데, 그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란 말이 서구사회가 다른 모든 思想에 처하여서까지도 無關心해지고 있다는 意味의 말인 것처럼 誤解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의 終焉은 西洋사의 한 국면, 즉 先進社會 扶態에 국한해서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이룩되지 못한 近代化하고 後進社會에까지도 擴大해서 主張하는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의 요해는 「비헤이비어리즘」의 科學的 思潮와 混雜해서

이루어진 오해인 것 같은데 「비헤이비어리즘」은 自然科学的인 接近法에 立脚하여 調査와 統計로서 構成된 理論이외의 모든 思想을 非科學的인 神話로 看做하고 있다.

이같은 「비헤이비어리즘」은 人間生活과 社會構造의 變遷을 지시하지 못한 科學으로서 「비헤이비어리즘」的인 理論이외의 思想을 비과학적인 神話로 看做한다는 것은 그들의 淺薄한 그릇된 견해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란 말은 이같은 그릇된 견해에 迎合되어서 모든 思想과 觀念의 褻奪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중요한 誤謬이며 「아롱」 자신의 본의도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그의 오해도 그것을 明白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아롱」 자신도 「이데올로기」의 서구사회에 국한된 말이라 하고, 後進社會가 산업화함으로써 그 近代化를 이룩하자면 人間체제의 近代化가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人間關係의 近代化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必須不可欠하다는 것을論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해결할 問題들이 순히 別個의 것일진데, 어찌 「이데올로기」의 論쟁이 어디서나 同一할수 있겠는가? 라고 反問까지 하고 있다.

以上에서 「이데올로기」의 終말이란 말이 後進國에서 타당할수 없다는 理由를 論하였는데, 사실 後進社會를 變혁하여 先進社會로 向上發展시키려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 終말을 論한 바로 「아롱」 그 자신이 力說한 바와 같이, 一定한 指導理念에 立脚한 正心혁명의 遂行과 그에 따른 人間體제의 近代化야 말로

산업혁명에 앞서서 遂行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課題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은 自由民主主義, 共產主義와 同一한 次元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規定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客觀的인 科學的 理論으로서 看做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도 본장 제 2절에서 論한바와 같이 이른바 신중간계층을 그 기반계급층으로 하고 지식층을 그 實踐의인 주도세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니, 一定한 社會의 存在에 定礎하는 理念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른바 (Seinsyehundenheit)의 制限을 超克하여 形成되는 理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같이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이 一定한 社會계층에 정초하며 그 계층이 意志的 定向을 반영함으로써 一定한 社會의 存在에 依한 超包括性에서 초탈하지 못하고 있는 理念인 限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인 理念임을 변할 수 없는 것일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植民地 民族主義 理念의 社會的 기반으로서의 신중간계층은 그것을 先進國社會에서 고찰한다면, 그 같은 계층은 이른바 절대적인 양대계급 즉 「부르주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계급과의 중간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계급으로서 그 양대계급과는 社會的 志向을 달리하고 있는 社會계층인 것이다.

이 새로운 사회계층은 先進國 後進國을 莫論하고 敵對의인 兩大階級처럼 계급제 이해에만 집착하여 대립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反對로 계급제 이해에의 執念을 止揚하려는 意志定向에서 그와같은 계급적인 對立과 투쟁을 해소統一하지 않으면 안될 歷史的 社會的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본질의 신중문층의 理念으로서의 先進國의 民主民主主義의 理念 내지 그 後進國 形態로서의 植民地 民族主義 理念은 우선 근본적으로 그와같은 兩大 「이데올로기」의 世界觀的 근저인 唯心論, 唯物論이라는 偏傾된 사변적인 형이상학적 근원적으로 초극함으로써 새로운 客觀的인 科學的 世界觀을 確立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껏 그와같은 世界觀이 確立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科學의 次元에 있어서는 「부르주아」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의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프로레타리아」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産主義 理念을 同時에 다같이 초극함으로써, 모든 社會的 계급에 對한 偏見性을 止揚하고 形式而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이르기까지 客觀的인 보편성 理念을 形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의 次元을 초극한 理念이라 하겠으니, 그 理念은 「이데올로기」超克에서 이룩되는 새로운 次元의 科學的 理念이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하겠다.

以上을 요약컨대, 대중 民主主義 내지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은 「이데올로기」的인 사회기반을 지니면서도, 그 사회기반인 이른바 신중간계급층의 獨特한 社會的定向으로 말미암아, 그 理念은

自由民主主義, 共產主義등과 같은 次元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規定될 수 없는 새로운 고차적인 과학적 理念으로 形成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植民地 民族主義 理念이 「이데올로기」를 超克하려는 새로운 고차원적인 科學的 産業혁명의 기초공사로서의 理念이라 할진대, 「아름」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總말을 主張하고 그것과 代替的으로 科學的인 理念인 始發이란 口號를 高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總말이 「비해이비어리즘」의 思潮와 迎合하여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科學的인 理念마저도 포함한 思想一般의 總말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總말이란 말은 「아름」의 淸구한 바에 따라 沒知覽한 誤斷으로서 排除되어야 한다.

더구나 現代 後進國에 있어서는 민중의 정신혁명이야말로 그정체혁명과 産業혁명 的 기초공사로서 그들이 遂行해야 할 가장 基本的인 課題가 되어 있는 것이어늘, 어찌 科學的인 指導理念이 高唱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 現代 後進國에 있어서는 植民地 民族主義의 科學的인 이념체계의 形成과 그와 같은 理念에 立脚한 민중의 登高전체적인 課題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으니, 現代 後進國은 民主共和國을 實現하기에 앞서서 우선 思想共和國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 하겠다.

※ 英國에 있어서는 청교도 명예혁명을 거쳐 民主主義가 實現되기에 앞서서 「존.록크」, 「뉴턴」과 같은 思想家와 과학자, 「밀턴」, 「드라이든」과 같은 문필가, 「크롬웰」과 같은 信念의 政治家가 星雲과 같이 문필공화국(The Republic of letters)을 이룩함으로써 민중의 정신철학가를 遂行하였던 것이며, 또한 「프랑스」에 있어서도 그 대혁명을 거쳐 민주공화국이 되기에 앞서서 「볼테르」, 「루소」, 「몽테스큐」등을 비롯하여 이른바 백과전서파의 정신혁명을 遂行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